

경주 도시탐색

Investigating the City

최영기 / 경주전문대 건축과 교수
by Choi Young-gi

천년고도의 현주소

신라 멸망 후 지배 계층의 상당수가 고려의 수도인 개성으로 이주하면서 서서히 천년의 도읍지는 퇴락하였으며, 몽고족의 침입과 임진왜란 등으로 목조건물은 거의 소실되거나 파괴되었다.

조선시대는 경주읍성을 중심으로 겨우 도시의 틀을 유지하다가 일제시대에 들면서 신라의 궁궐인 반월성과 주작대로로 연결되는 통일신라 이후의 궁궐터(북궁지) 사이를 가로질러 경주에서 포항, 울산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하여 반월성과 별궁인 안압지가 단절되어 신라의 중심부는 삼분되고 말았다.

반월성 북부에 산재한 문화유적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북궁의 서편으로 철도역과 부대시설들이 위치하는 등 일제는 문화유적지 중심부에 신도시를 계획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철저하게 파괴(역사의 축소와 단절)하였던 것이다.

도시외곽도 주변지역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철도로 인하여 상당수의 문화재지역(사찰터, 고분 군 등)이 양분되었거나 훼손되었으며, 경주 읍성도 조선말까지 명맥을 유지하다가 일제시대의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성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현재 성곽도 훼손된 채 방치되어 겨우 50여m 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문화말살의 의도로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개발되어져 상당수의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원형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입안되어진 도시의 틀을 기초로 구도심은 대부분 문화유적들과의 상관성은 고려하지 않고 아직까지 안일한 자세에서 이러한 틀에서 부분적으로 보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도 경주는 당연히 보존되어야 하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의식은 경주에서 생활하는 원 주민들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규제를 위한 개발의 억제로 인식되어져 타도시에 비해 규제로 인한 피해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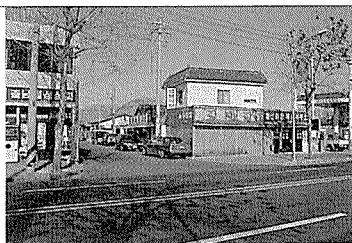
지방화시대를 맞아 점차 개발은 필연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무계획하고 즉흥적인 개발로 인하여 도심의 문화유적은 결국 서울의 남대문과 같이 초라한 외톨이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보존의 차원에만 초점을 맞춘 문화재보호법은 지역민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불러일으키며, 원 주민들의 피해의식만 가중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문화재보전 및 보호차원에서의 규제는 바람직하겠으나 규제와 더불어 원주민에 대한 배려가 함께 제안되어져서 원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가로체계

구도심 가구의 기본골격은 격자형의 가로체계를 하고 있다. 도로에 접한 부분은 어느 정도 도시건축의 규모를 하고 있으나 가구내부는 이면도로의 단절(대부분 막다른 골목)과 접근의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 단층의 노후한 건물로 낙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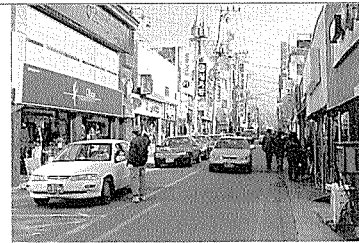
가장 변화한 거리인 중앙로는 폭 12m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쌍방통행과 노상주차로 인하여 보행자들은 곡예보행을 하는 실정이고, 가로는 콘크리트와 유리숲의 표징



시가지의 모습 (사진 최영기)



좁은 도로와 상가 (사진 최영기)



시내 중심가 도로 (사진 최영기)

을 하고 있다. 중앙로를 제외한 도로 폭은 9m 이하로써 차량의 일방통행을 제외한 도로의 형태는 중앙로와 비슷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구도심 가로의 형태의 특징은 좁은 도로에서의 노상주차로 인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무질서하며, 가로수 등 녹지 공간과 보행자를 위한 공용의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삭막한 경주의 이미지 부각에 일조를 하고 있다.

도시경관의 어제와 오늘

경주로 접근하면서 인지되는 도시경관의 특징은 기와지붕과 대형 고분 군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도심에서도 이러한 정취를 느낄 수 있었으나 건물의 대형화와 고층화 추세로 인하여 현대적인 건물(?)로 대체되면서 과거 푸근했던 도심의 분위기가 점차 고도의 향취를 잃어가고 있다.

구도심에 위치한 고분 군(노동동 고분 군, 노서동 고분 군, 대릉원)들은 도심의 랜드마크적인 역할과 도시경관의 좋은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각 고분 군들은 도로로 단절되어 마치 개개의 고분 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대릉원 후면부의 태종로와 중앙로에 접한 건물 군으로 인하여 도심에서 보행자들이 고분들에 대한 시각적 인지도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잘 정비된 대릉원은 높은 담으로 인하여 도심 속의 열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의 한계, 시각적 단절, 개방시간의 제한 등 그 역할이 반감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의 낮으막한 건물과 어우러져 과거 웅장하게 보이던 고분들은 점차 주변의 고층건물들로 인하여 점차 왜소한 무덤으로 전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공원으로서의 역할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도심 속의 휴식처로서 적극적인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 및 사료관의 설치로 시민 및 관광객의 휴식과 산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경주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명실상부한 도심공원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로와 접한 고분 군 전면부의 필지들을 수용하여

소공원으로 정비해 보행자들의 휴식 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고분 공간과의 자연스런 연계와 가로에서 고분 군이 인식(녹지의 조망)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하겠다.

도시건축의 현실

이전까지 규제되었던 지역이 90년대에 들면서 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개발의 붐을 타고 고층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건축되어져 도심에서 주변 산으로의 조망은 차단되는 등 과거 정감어린 도시의 면모는 퇴색되어져 여타 중소도시와 다를 바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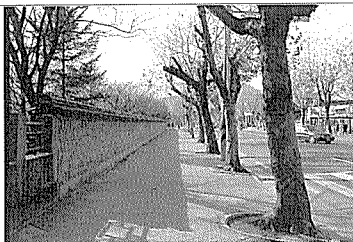
도시건축의 특징은 단층의 목조건물과 대부분 2~3층 규모의 건물로서 상당수가 20여년 전에 지어졌으며, 노후한 건물들이 많다.

대지의 상황은 영세한 필지이며, 주차장법이 발효되기 전의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매우 높아 현재의 건축법규 테두리 내에서는 개발의 잠재력이 낮은 편이다. 물론 영세한 몇 개의 필지를 합필하여 개발하거나 공동개발 하면 가능하겠으나 도심의 규모나 도로 폭의 한계, 도시 성격상으로도 제고의 여지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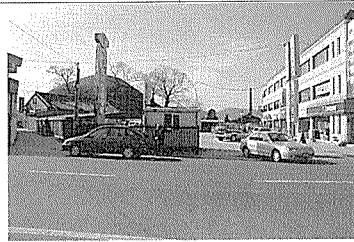
이와 같은 기존 구도심의 도시건축 특징은 오히려 개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는 개발의 한계가 매장 문화재의 보존적인 관점에서는 다행한 일일 수도 있다.

과거에는 도심에 기념품판매 및 숙박시설 등이 도심의 가로변에 위치해 여행자들이 자연스럽게 주야로 경주 도심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으나 도심과 격리된 지역에 인위적인 관광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지역민과의 자연스런 접촉은 단절되고 도심은 점차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보다는 소비 및 향락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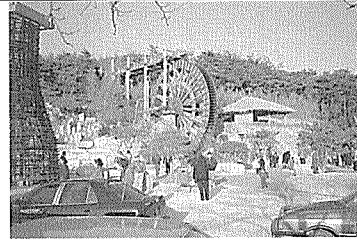
주변의 신항도시들은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복지회관 및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시민시설들이 건축되어져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참



대릉원 옆 도로 (사진 최영기)



건물에 둘러싸인 능 (사진 최영기)



보문관광단지내 물레방아

여의식 고취 및 체험의 장으로서 시민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중요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의 현실은 이러한 시민시설이 전무하며, 상대적으로 상업적인 성격의 놀이 문화가 팽배해져 있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은 찾기 힘들고 소비 및 향락의 도시로 전락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더구나 도심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주변지역에서 경주로 와서 밤새 여흥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행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문화의 정착과 선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역사도시의 정서와 배치되는 현상이다.

개발방향의 제안

신라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인 유적과 유물 및 문화가 산재해 있으나 개발과정에서 노출된 유적에 대하여 발굴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볼 때 한심하다기 보다 무지에 가까운 느낌이 든다.

한번 훼손된 유적은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굴 후 원형의 복원이 아니라 수습된 유물들은 고작 박물관의 전시장에 진열되거나 몇 장의 사진으로 남을 뿐 대부분 본래의 개발계획대로 추진되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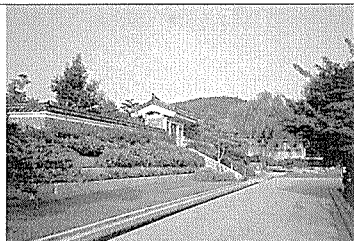
이와 같이 매장문화재 위에 세워진 구도심은 부분적인 개발이나 즉흥적인 발상에 따른 점적인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었거나 멸실되고 있으며, 이제는 평지뿐만 아니라 선

도산 자락까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파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총체성을 지닌 보존과 개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로서의 균형있는 면모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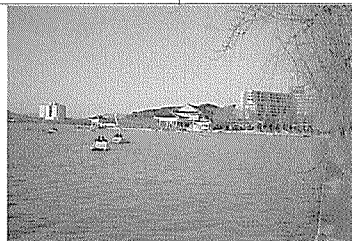
이와 같은 총합적인 장기 종합계획은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명실상부한 문화유적의 역사 및 관광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하여 보고 듣고 행위 할수 있는 장소적인 특성을 제공하여 보고 지나치는 관광에서 탈피하여 머무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적인 성격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즉흥적이며, 일회적인 성격의 개발은 오히려 더욱더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으며, 나아가 회생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보존되어야 하는 지역과 부분은 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과거 잘못 설정되거나 개발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수용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등 신라문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신라, 고려, 조선,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장소적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명실상부한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청사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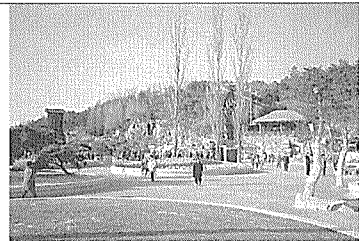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볼 때 타 민족이 침입하여 그들에 의하여 우리 문화의 훼손 혹은 말살을 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지만 이제는 타민족의 침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을 제대로 간직도 못한 채 훼손하거나 말살하여 흔적조차 없애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으니 후손들에게 어떠한 문화유산들을 물려줄지 의문스럽다.



보문관광단지내 답장 및 거리



보문단지 호수와 전경



보문관광단지